

홀트소식

WINTER 2020 VOL.200

65TH
더큰가족
홀트아동복지회





겨울 이야기

어엿한 성인으로 첫 날갯짓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두 명의 파랑새 멘토와 요리사를 꿈꾸는 청소년 파랑새 멘티를 만나봤습니다. (7p 계속)



Contents

- 04 꿈과 희망 1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홀트, 세움'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 07 꿈과 희망 2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진 든든한 인연
- 10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모든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
- 13 행복한 가족 만들기
미혼한부모의 심리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온택트 카운슬링 '온맘다해'
- 16 Love In World 1
건강한 자립을 향한 몽골 엄마들의 첫걸음
- 18 Love In World 2
캄보디아 아이들의 꿈을 위한 '날개웃'
- 19 나눔인물 1
서로의 꿈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 22 나눔인물 2
삶 속에서 나눔이 큰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 24 나눔인물 3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유튜브버들의 기부 릴레이
- 26 나눔기업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mom편한 퀸즈편당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설태호 이사장(주복상사 대표) |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임부웅 이사(前 HICS 부회장) | 김경희 이사(前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린다백 이사(홀트아동복지회 이사) | 최수열 감사(삼도회계법인 파트너) | 박철용 감사(삼덕회계법인 부대표)

본부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광주지부 062)227-8877
경기지부 031)217-3292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1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6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홀트학교 031)915-2913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031)929-15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90-2966
홀트대구심리상담센터 053)627-8875

홀트광주심리상담센터 062)363-8878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032)424-5839
전주영아원 063)222-155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홀트대구어린이집 053)746-7504
하남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들 042)585-3004
고운들 031)216-9004
아름들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마포클로버 02)322-3325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드림센터 (캄보디아, 탄자니아, 몽골, 네팔) 02)331-7086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 200호·계간 발행일 | 2020년 12월 25일 발행인 | 설태호 편집인 | 김호현
발행처 | 나눔사업본부 홍보팀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후원문의 | 02-331-7000 후원ARS | 060-700-1006
홈페이지 | www.holt.or.kr 디자인 | 알투디투
좋은 사연·좋은 제언 | pr@holt.or.kr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홀트, 세움’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아동청소년팀 강명혜



UN 아동권리협약(UNCRC)이 제정된 세계 어린이의 날(11월 20일)을 맞이하여 <2020 아동권리 그림공모전 ‘홀트, 세움(아동의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이다)>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간 전국의 초등학교생(만 7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작품심사는 1차 홀트아동복지회 임직원 심사, 2차 외부전문위원 심사(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고흥규 교수), 3차 일반 시민 온라인 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246 작품이 응모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46편의 작품(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장려상 10, 참가상 30, 단체상 2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동의 권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홀트, 세움’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한소정(유림초3)

아프지 마 지켜줄게, 넌 사랑이야

- 작품설명 : 아동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누구든 사랑입니다.
- 수상소감 :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아 하늘나라로 영원히 떠나 버린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요.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 곁에서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고통받는 친구들을 지키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과 학대로부터 힘없는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최우수상(홀트아동복지회장상)
윤제영(고양화정초2)

내 말을 들어주세요!

- 작품설명 : 아동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때다.
- 수상소감 : “제가 그린 그림이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평소에 엄마, 아빠나 선생님, 어른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저와 같은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크게 열어주신다면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최우수상(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상)
이사론(인천영화초4)

나를 지켜주는 고마운 마음

- 작품설명 : 나를 행복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말들을 하트로 그려서 풀어보았습니다.
- 수상소감 :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처럼 멋진 말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진 든든한 인연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
여경옥 & 조유리 멘토
이준희, 김승애 멘티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파랑새, 꿈날)은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순조롭게 자립할 수 있도록 퇴소 전후 2년간 경제, 진로,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사업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18년부터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90여 명의 아동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어엿한 성인으로 첫 날갯짓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멋지게 비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두 명의 파랑새 멘토와 요리사를 꿈꾸는 청소년 파랑새 멘티를 만나봤습니다.

요리에서 삶의 태도까지, 인생 선배의 조언

_ 파랑새, 꿈날 여경옥 명예멘토(現 롯데호텔 상무)

여경옥 멘토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선 목적의 요리 행사 ‘행복기사단’의 대표를 통해 홀트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42년간 조리계에 몸담은 베테랑이지만 음식을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간 조리 관련 강의

와 특강 등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익숙하지만, ‘파랑새, 꿈날’ 활동은 조금 다른 재미와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후배를 양성하는 것과 특별히 몇몇 친구들을 대상으로 멘토 활동을 하는 것은 확실히 달라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에게도 무척 뜻깊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척 긍정적인 편인데 저의 그런 기운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해요.”



우수상
왕수민(서울개웅초4)

아동은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작품설명 : 학교 갈 친구들이 학교가 아닌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
- 수상소감 :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저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 대신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안타까

웠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가 바른 자리로 가도록 파이팅!”



우수상
이서희(부양초6)

아동학대로부터 어른들이 귀 기울여 듣는 세상으로

- 작품설명 : 아동학대 신고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귀 기울여주는 세상이 됐다.
- 수상소감 : “아동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작품을 완성하고 제출하기까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아동은 소중하며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에 참여한 시민분들은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그림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어른들이 더 모르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낀다.’, ‘아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어른이 되겠다.’ 등 심사 소감을 남겼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의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계속해서 아동권리 옹호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더 많은 수상작품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랑새, 꿈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에 주력하면서 그중 하나로 ‘맛있는 자립 생활을 위한 요리 교육’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파랑새 멘티들이 가장 만들어보고 싶다고 선정한 고추 잡채, 간소새우 등을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짧은 영상입니다. 멘티들이 현장을 찾아 여경옥 멘토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궁금한 것을 묻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경옥 멘토는 현재 처한 상황보다 미래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 역시 열여섯 살부터 요리를 시작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여러 기술과 노하우를 멘티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비단 요리만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의 기본, 삶의 태도, 목표가 있으면 끝없이 전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 합니다. 아이들이 현실에 부딪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조언을 건넬 수 있는 든든한 인생 선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멘토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기억할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

— 파랑새, 꿈날 3기 조유리 멘토

조유리 멘토는 ‘파랑새, 꿈날’ 1기 멘토로 활동했던 친구의 추천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무척 좋은 활동이었다고 적극 권했어요.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부족하지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믿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립을 앞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에 대한 이해라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11년간 근무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자립에 대한 이유와 마음가짐을 충분히 알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자립 생활을 위한 재무경제 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전하려고 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아이들이 살면서 조심해야 할 불공정한 계약 등 실용적인 경제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연장자와 일하는 데 익숙했던 조유리 멘토는 활동 초기 어린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지고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Interview 02

차근차근 요리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 파랑새, 꿈날 3기 김승애 멘티
(천안제일고등학교 3학년)

“사진을 찍으면서 어색했던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멘토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요리사의 꿈을 키워왔는데 고등학교도 식품가공과로 진학했어요. 멘토님과 나눴던 이야기를 새기면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꼭 좋은 요리사로 성장하겠습니다!”

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살면서 스스로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티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찾아 보면 분명 보일 테니까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좋은 어른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Interview 01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꿈꿔요

— 파랑새, 꿈날 2기 이준희 멘티
(수원과학대학 글로벌한식조리학과 1학년)

“촬영을 앞두고 무척 떨렸지만, 아주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촬영하면서 멘토님들과 더 친해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을 나누어주는 요리사’가 꿈인데, 많은 사람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

나눔협력팀 조은하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권리헌장 제1조 -

수많은 책에 같은 이야기 하나 없듯,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저마다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책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북커버처럼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위기가정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한 번의 도움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디어패밀리박스가 온택트 핸드즈온(Ontact Hands-on) 봉사 캠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디어패밀리박스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에게 애착 인형을 선물했던 시즌1,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했던 시즌2에 이어, 위기가정아동을 응원하는 시즌3가 북커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각자 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 봉사활동’ 컨셉으로 진행하는데요. 다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모이는 것이 망설여졌다면, 북커버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해보는 건 어떤가요? 아이들을 응원하며 만든 북커버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되며, 캠페인의 참여를 통한 후원금은 위기가정아동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심리정서 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아이들과 지구, 모두를 위한 친환경 북커버

일반적으로 가죽 제조 시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고, 오염된 물이 방류되며, 유독한 폐기물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가죽 북커버가 어떻게 친환경적일 수 있을까요?

“나를 지켜주세요.” 캠페인에 사용되는 북커버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해결했습니다. 북커버에 사용된 가죽은 자투리 가죽을 모아 만든 재생 가죽이며, 오염된 물을 대규모 방류하는 일반 가죽 공정과 달리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식 방식으로 제조되었습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인체 유해한 물질들이 제거된 무독성 가죽으로, 이 모든 친환경적 요소를 GRS(Global Recycled Standard)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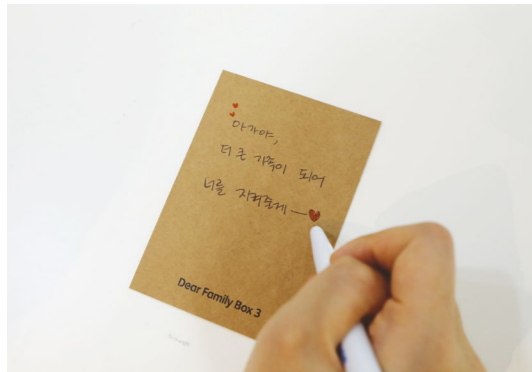
소재부터 제조방식까지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핸드즈온 봉사활동으로 아이들과 지구 모두를 지켜주세요.



Dear Family Box 3 : 북커버 만들기 “나를 지켜주세요.” 위기가정아동지원 캠페인



북커버, 함께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물해요.



캠페인 페이지에서
참여신청



배송받은 키트로
북커버 만들기



위기가정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 카드 작성



아이들에게
북커버
선물하기



미혼한부모의 심리정서건강 증진을 위한 온택트 카운슬링 '온맘다해'

미혼한부모지원센터 원나현

“경제적으로, 심적으로도 여유가 없다보니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하고, 밤이 되면 생각이 많아져서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그 화가 아이에게 가고, 아이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니 이 부분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엄마인 제가 평온한 상태여야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엄마로서는 물론 한 사람으로서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이렇듯 많은 미혼한부모는 스트레스, 불안감, 무기력감 등 복합적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미혼한부모의 개인적인 정신건강은 물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CJ올리브영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미혼한부모가 본질적인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심리정서지원 키트, 비대면 뷰티 카운슬링으로 구성된 온택트(Ontact) 카운슬링 '온맘다해(따뜻한(온) 마음치유로 다함께 행복)'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심리정서지원 키트 후기사진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심리정서지원
키트



비대면
뷰티 카운슬링



온택트 카운슬링
'온맘다해'

▶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진행(6회기)
- 태블릿PC와 휴대용 와이파이 대어를 통한 미혼한부모의 원활한 심리상담 진행

▶ 심리정서지원 키트

- 각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심리정서지원 DIY 키트 진행(2회기)

▶ 비대면 뷰티 카운슬링

- 비대면 뷰티 카운슬링을 통한 진단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뷰티 키트 제공(1회기)

특히 '온맘다해'는 대면 서비스와 집단 활동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온택트(Ontact, 온라인 컨택트)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심리상담 진행 후기

“처음에는 변화가 생길지 의문을 갖고 상담에 임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짧은 시간에도 저의 우울감과 무기력함, 낮은 자존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스스로를 질책하기보다 더욱 알아주며 사랑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담을 받고 긍정적으로 바뀐 제 모습이 가끔 너무 낯설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선생님과 있으면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네요. 너무 소중한 값진 시간입니다. 이렇게 치유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에 좋은 상담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상담 받고 달라진 제 모습이 너무 놀랍고 행복합니다. 점점 미래에 대한 용기가 생겨요. 상담 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 꼭 기억해서 잘 실천하고 마음가짐도 더 굳건히 해서 우리 아이 더 잘 키울게요.”

“상담 받고 난 후 단유도 성공했고, 새벽에 자주 깨던 아이가 이제는 깨지 않고 쪽 잘 자요. 덕분에 스트레스도 줄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취직도 해서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J올리브영은 2016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미혼한부모의 정서안정과 자립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미혼한부모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온택트 카운슬링 '온맘다해'를 통해 많은 미혼한부모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자립을 향한 몽골 엄마들의 첫걸음

해외사업팀 박소현

몽골 친길테구 12동에 위치한 홀트 해외사업장은 빈곤 가정의 비율이 높는데, 특히 여성 한부모 가정 아동의 비율이 45%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엄마들은 빈곤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아빠 없이 아동의 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엄마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지난해 한국증권금융의 후원으로 빈곤가정 아동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느라 경제 활동이 어려웠던 엄마들은 아이들이 테이케어와 방과 후 돌봄을 받는 동안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재봉, 조리, 미용, 용접 등 평소 각자 관심이 있던 분야를 엄마들이 직접 선택, 수강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교육을 이어나가 무사히 수료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업 훈련 교육을 수료한 엄마들 가운데 조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재 학교에서 보조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Q. 학교에서 조리사로 일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였나요?

2016년에 아이들 아빠가 암으로 가족들 곁을 떠나면서 생계가 막막했어요. 국가에서 나오는 수당과 청소 일을 하면서 하루 벌 어 하루 살았습니다.

Q. 많은 직업교육 중 요리를 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재봉 등을 배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먹일 저녁을 차리면서 요리는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딸들한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요리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Q. 직업 훈련 교육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교육 들었던 엄마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어려운 점은 서로 알려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독여주면서 무사히 교육을 끝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끝났지만 계속 연락하고 의지하면서 지내요.

Q. 취업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우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달라졌습니다. 일하면서 제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생겨 일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Q. 소득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모두 다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 옷, 식비로 주로 나가는데,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Q. 앞으로 꿈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 하는 게 꿈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들 모두 홀트드림센터를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좋은 기회가 닿아서 직업교육을 받아 조리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가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꿈을 위한 '날개옷'

해외사업팀 이동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안찬초등학교 아이들은 매일 같은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합니다. 더운 날씨에 매일 땀을 흘리고, 휴먼지에 옷이 더러워지지만 갈아입을 교복은 없습니다. 마을 내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매일 빨아서 입을 수도 없을뿐더러 가정 형편 때문에 번갈아 입을 교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입은 교복은 어느새 낡아 구멍이 나기도 하고, 훌쩍 커버린 키에 바지는 발목 위를 넘어 7부 바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꼬질꼬질해진 교복 탓에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 친구들의 놀림이 부끄러워 학교에 가지 않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과 가정에 알리고 교복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을 받아 308명의 빈곤 초등학생에게 새 교복을 선물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 휴교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새 교복을 품에 안고 다시 등교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교복이라는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홀트아동복지회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1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의 귀엽보짜한 모습을 이곳에서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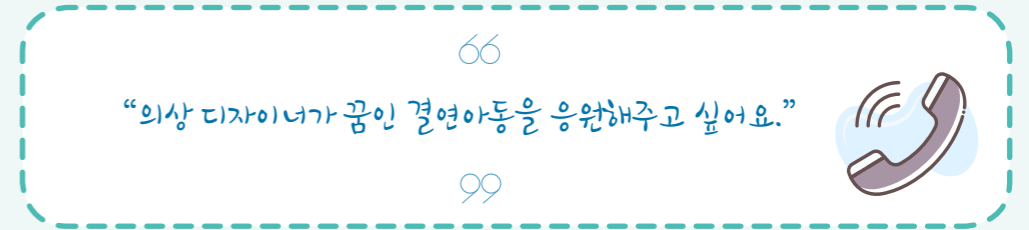


2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렇게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캄보디아는 11월부터 전국 휴교령이 해제되어 아이들이 새로운 교복을 입고 등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꿈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나눔참여팀 이순주



어느 날, 사무실에 따뜻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결연아동의 성장보고서를 확인하고 일 년 동안 훌쩍 성장한 아동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걸려온 전화인데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홀트와의 인연으로 결연아동들에게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있는 *손성준(Castle J) 후원자는 결연아동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고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아동 덕분에 스스로 한 층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MCND' 멤버

지구 반대편에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손성준 후원자는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외, 국내 총 2명의 아동을 후원 중이며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아동들의 상황 또한 어려운 것을 알게 되고 가난이 그들의 꿈마저 빼앗는 것을 막고자 선뜻 다양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꿈인 캄보디아 결연아동 돈 끄무이(Don Kimmuy)에게 그림을 맘껏 그릴 수 있도록 미술용품, 반 친구들 모두에게는 마스크를, 그리고 꿈을 응원하는 영상 편지까지!

◀ 3년 전 돈 끄무이의 모습



너의 꿈을 응원할게

돈 꿈미이 안녕, 잘 지내고 있지? 너의 소식을 편지로 잘 확인하고 있어. 최근 홀트에서 보내준 성장보고서를 통해 너의 꿈이 의상 디자이너라는 것에 너무나 감탄했고, 꿈미이라면 분명히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널 후원하기 전에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지금은 내가 그리던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꿈미이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노력하다 보면 멋진 의상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야. 너의 꿈을 응원할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위험한 시기니까 내가 보낸 마스크, 친구들과 꼭 쓰고 다니고 사이좋게 지내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보자. 잘 지내, 꿈미이!

- 손성준 후원자의 영상편지



손성준 후원자는 해외결연아동뿐만 아니라 대구복지관의 국내 결연아동에게도 마스크 약 580개, 손 소독제 약 50개를 보내며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많은 분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내 및 해외빈곤가정과 아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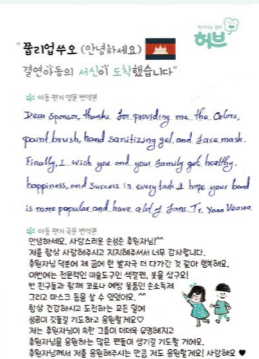
후원자님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손성준 후원자님! 캄보디아로 필요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후원자님을 만나기 전엔 '난 꿈을 이룰 수 없어.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을 주거나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후원자님 덕분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에게도 힘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해요! 후원자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제 꿈을 향해 노력할게요. K-pop 팬으로서 후원자님이 한국 아이돌 스타라는 게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 돈 꿈미이 영상편지



▲ 돈 꿈미이가 쓴 감사편지



▲ 마스크 선물을 받은 돈 꿈미이와 반 친구들

향기나는 결연, 허브란?

국외 및 국내 아이들을 지원하여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해외 빈곤아동들의 안정된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업 기회가 제한된 해외아동에게도 마음껏 공부하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의 입양대기아동 양육비, 치료비와 한부모, 조손, 다문화 등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생계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눔이 큰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팀 우은영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죠. 홀트 고액기부자 모임 '탐리더스' 김연숙 위원과 홀트와의 인연은 탐리더스 김성주 위원의 소개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매월 개인후원 1백만 원, 기업후원 1백만 원 정기후원으로 올해 총 누적 후원금액이 1억 원을 넘었는데요. 매일 하루에 한번이라도 나눔에 대해 생각하려고 한다는 김연숙 위원을 만났습니다.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러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주)서연종합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후원 금액을 듣자 놀란 반응이었는데요. 좋은 일을 하는데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썼다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게 되었다며 나눔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기부한 금액만큼 안 벌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1억 중에 1천만 원을 기부했다면 나는 올해 9천만 원만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건 내 몫이 아닌 거예요. 후원은 좋은 일인데 혹여나 내가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마인드세팅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걸 생색내는 건 제일 못난 거라고 생각해요. ‘도와준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야 해요. ‘일정 부분을 같이 나눠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게 되잖아요.”

무엇이든 척척 해낼 것 같은 여장부 모습의 김연숙 위원도 항상 승승장구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20대 후반에 시작했던 첫 사업이 크게 실패하자 한참 실의에 빠져있던 그는 앞으로의 삶을 이전과는 다르게 그려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첫 실패를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일어서려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있어야겠다고 깨달았죠. ‘남을 도우면서 살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많이 도우려면 큰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생각한 것은 바로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그의 성격은 나눔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후원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한 것이죠. 한 달 3만 원 정기후원을 시작으로 큰 금액의 일시후원까지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나갔습니다.

김연숙 위원은 탐리더스로 활동하면서 2017년 ‘아름다운 청소년*’ 꿈 캠프시 진행했던 강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일 때문에 수백 명 앞에서 강의한 적도 많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건 처음이라고. 열악한 환경에도 꼭 기운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꺼낸 그의 마음은 학생들에게도 닿았습니다.

“모두 어린 학생들만 있었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하하. 다행히 마음이 통했던 건지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이 공감하며 많이 울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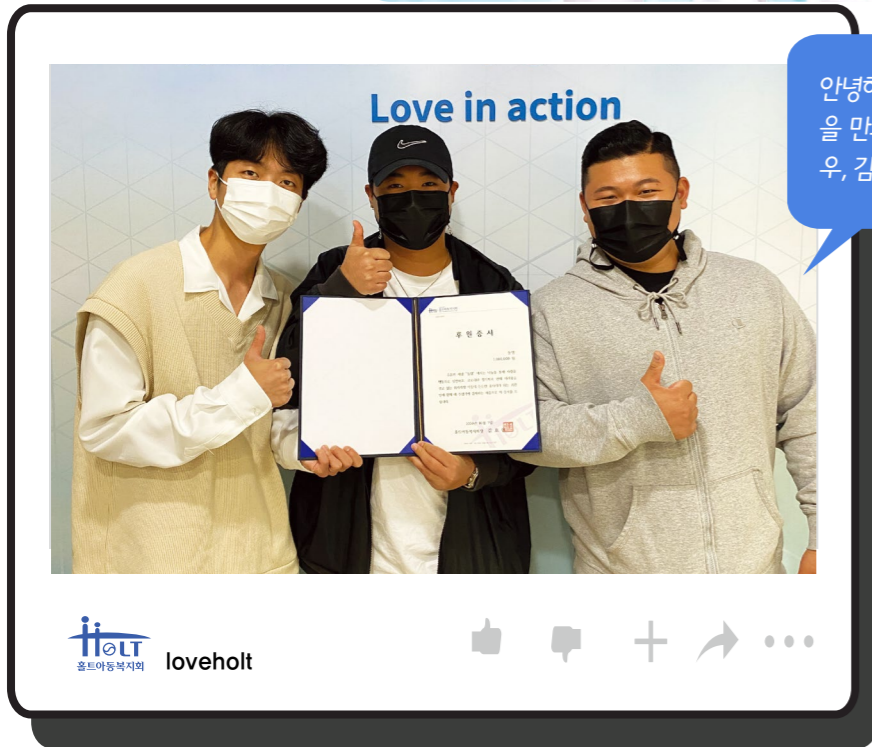
지금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건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덕이라며, 후원은 받은 것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하는 김연숙 위원. 그는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김연숙 위원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꿈지원금을 지원하는 홀트아동복지회 교육지원사업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유튜버들의 기부 릴레이

나눔지원팀 송하은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쾌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 돌잼(강진우, 김도혁, 오지환)입니다.

마스크와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 19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과 취약계층 가정에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전국 각지에 계신 많은 후원자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었는데, 바통을 이어받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따뜻한 나눔 실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튜버 돌잼의 선행을 시작으로 개그우먼 출신 유튜버 강유미 씨까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긴급지원에 앞장서주었습니다. 특별한 나눔에 동참해준 유튜버 돌잼과 강유미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개그우먼 출신 크리에이터 강유미입니다. 현재 '강유미 yumi kang 좋아서 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며, 콘텐츠로 여러 가지 먹방을 했었지만, 지금은 주로 ASMR을 진행 중입니다.



Q.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참여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을까요?

| 돌잼 | 계속되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기부는 처음이어서 검색하다 보니, 홀트아동복지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알게 되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 강유미 | 이전에 유튜브 콘텐츠로 간호사 ASMR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해 기사와 영상을 찾아보니 최근 코로나로 인한 그분들의 노고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질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돌보고 개인 생활과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어요. 이러한 생각이 기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 이번 후원을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 돌잼 | 지금까지 기부한다는 것은 인터넷 기사로만 접해서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강유미 |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후원소식을 공유했더니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칭찬받으니 저도 덩달아 아이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전에 정기후원은 몇 군데 해보았지만, 부끄럽게도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한 건 처음이에요. 정말 마음 깊은 곳부터 뿌듯함을 느꼈고 나중에 더 벌어서 기부자 모임에도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Q. 후원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 돌잼 | 어떻게 보면 크지도 적지도 않은 후원금이겠지만, 저희에게 기부는 처음이라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하고 보니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기부라는 것이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특별한 보람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동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강유미 | 후원을 망설이는 그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망설이기보다는 삶이 바빠 후원을 생각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각자에게 알맞은 시기가 있듯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을 많은 분이 경험하고 후원에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후원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사용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큰 결심으로 후원에 참여해주신 유튜버 돌잼과 강유미 씨 그리고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mom편한 퀸즈펀딩



나눔협력팀 홍은지

지난 10월 6일(화)부터 11월 5일(목)까지 약 한 달간, 롯데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언택트 나눔 펀딩 'mom편한 퀸즈펀딩'을 진행했습니다. 롯데GRS와 함께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미혼한부모 셀러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 이벤트, 'mom편한 퀸즈펀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을까요?



2020년은 코로나 19로 많은 분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확진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위생용품의 가격은 치솟았고 생계 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미혼한부모에게도 어김없이 닥쳐왔습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많은 미혼한부모들은 아이를 대신 돌봐줄 가족이 없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수공예품 제작 분야로 진출을 희망합니다. 디퓨저, 베이킹 등 열심히 배운 기술로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방에서 하는 강의를 통해 자립을 꿈꿉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고객과의 접점이 모두 사라지면서 미혼한부모들은 다시 생계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은 물론 생계마저 걱정하게 된 많은 미혼한부모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홀트와 함께 미혼한부모를 위한 자립을 지원해온 롯데GRS와 힘을 합쳤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 롯데GRS

롯데GRS는 지난 2018년부터 홀트와 함께 미혼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플라마켓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행사를 열 수 없었고, 플라마켓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언택트 펀딩 이벤트를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0월부터 약 한 달간 롯데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mom편한 퀸즈펀딩'을 진행했고, 롯데GRS는 임직원들의 펀딩 참여 기금에 대한 1:1 매칭 기부뿐 아니라 미혼한부모 셀러의 펀딩 리워드 제작비 일부에 대한 기부까지 약속하였습니다.



베이킹
BAKING



디퓨저
DIFFUSER



비누꽃 용돈박스
SOAP FLOWER



테라리움
TERRARIUM



가죽제품
LEATHER

그래서인지 이전에 플라마켓 셀러로 참여했던 많은 미혼한부모들이 'mom편한 퀸즈펀딩'의 셀러로 참여하였습니다. 디퓨저, 가죽제품, 베이킹, 프리저브드 플라워, 테라리움, 총 다섯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미혼한부모 셀러와 함께 'mom편한 퀸즈펀딩'은 출발하였습니다. 펀딩 오픈을 준비하며 엄마들은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판매용 사진 촬영을 하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꼭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따로 정리해보기도 하며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초 작업을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mom편한 퀴즈펀딩’이 시작되고, 롯데그룹에서도 많은 분이 미혼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롯데GRS 임직원들은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펀딩인 만큼 빠진 부분은 없는지 펀딩 페이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해주었고, 롯데그룹의 12개 계열사 직원분들은 ‘mom편한 퀴즈펀딩’에 직접 참여해주었습니다. 특히 롯데건설에서는 연말 임직원을 위한 선물을 미혼한부모의 제품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추가로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 덕분에 ‘mom편한 퀴즈펀딩’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펀딩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후기를 함께 확인해볼까요?

“mom편한 퀴즈펀딩 참여자들의 이야기”



펀딩 페이지에서 미혼한부모들의 사연을 보고 그들이 직접 만든 리워드를 받으니 뭔가 더 뜻깊었어요. 특히나 테라리움 안에 아들과의 꿈을 함께 담는다는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온라인으로 운영하니 이것저것 많이 둘러보며 펀딩도 하고, 응원 메시지도 남길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 펀딩 참여 임직원(롯데GRS)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보가 없어서 도전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펀딩에 참여하면서 제품에 대한 보완점, 키트 구성방법,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 등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확실히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 미혼한부모 셀러1



홀트를 통해 계절마다 육아용품이 지원받았는데, 이번 펀딩에도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퀴즈펀딩 스티커를 통해 다른 셀러들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번 펀딩을 계기로 제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생각해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미혼한부모 셀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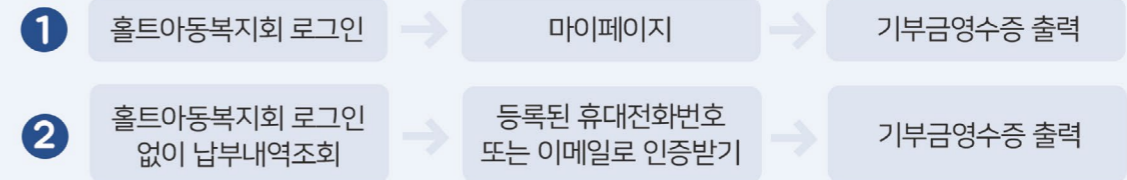
이번 펀딩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모두 미혼한부모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아질 텐데요, 앞으로 더 새롭고 재미있는 나눔 이벤트를 통해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후원자님!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에도 국내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국내외 아동과 가족을 위한 희망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이용하기



- 2021년도 1월 중순부터 홈페이지 영수증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나눔지원팀(02-331-7073~6)으로 연락주세요.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후원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유선으로 요청해 주세요.
-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주셔야 국세청에 등록됩니다.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부자정보변경과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출력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확인은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 주셔야 2020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 후원자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라며, 정보확인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눔지원팀(02-331-707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창립 65주년 기념식 및 제20대 설태호 이사장 취임식

10월 8일, 우리회 창립 65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창립기념식 및 설태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설태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금과 운영에서 투명함을 견지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 나가 후원자와 수혜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설태호 이사장은 1999년 우리회 감사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이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여경옥 셰프, 파랑새, 꿈날' 명예 멘토 위촉

11월 16일, 중식계 스타셰프인 여경옥 셰프가 우리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파랑새, 꿈날)'의 명예 멘토로 위촉되었습니다. 여경옥 셰프는 “요리교육영상을 통해 보호종료아동들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앞으로도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11월 19일, 국외입양인 및 입양 가족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외입양인뿐만 아니라 홀트드립센터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한우협회-롯데리아, 한우버거 세트 1,440세트 기부

12월 16일, 전국한우협회는 롯데리아 한우버거세트 상품권 1,440매를 결식아동을 위해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지원으로, 특별히 올해는 한우 불고기 약 350kg을 홀트일산복지타운/요양원에 전달하여 중증장애인에게도 특별한 식사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카버코리아, AHC 아이크림 셰어 박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9월 18일,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한 물품 후원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AHC '아름나눔 캠페인'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여성들의 아름다운 라이프를 지지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카버코리아에서 지원한 아이크림 셰어박스 1,000세트는 미혼한부모가정에 전달하였습니다.



롯데호텔 월드, 취약계층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

9월 2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후원금은 여름철 성수기 롯데호텔 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된 수익금 일부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5월 국내입양가족 작품공모전 '제14회 아름다운 행복' 전시 공간 후원을 시작으로 따뜻한 나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놀이체육프로그램 '여기어때' 사업 후원

국내 대표 종합 숙박·모바일티켓 플랫폼 '여기어때'가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을 위해 '여기어때' 사업을 후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 범위가 축소된 아동들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심리·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내 놀이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충청지부 우리옷 윤/로드커피, 마스크 목걸이 판매수익금 전달

9월 1일, '우리옷 윤'은 지역사회를 위해 마스크 목걸이를 제작하여 판매수익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판매에 동참해준 '로드커피'에도 감사드리며 지역 내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양시장장애인지원센터 제15회 전국장애인문학제 비대면 온라인 시상식

11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아산·천안·대전 등 수상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온라인 시상식은 '고양장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트강동복지관 발달장애인 건강생활지원 온라인 걷기대회

신체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워크아웃 앱을 통해 걸을 때마다 기록이 측정되고, 함께 참여하는 분들의 기록까지 알 수 있어서 더욱 열심히 걷게 되었다”며 온라인이지만 어느 대회 못지않은 열기가 느껴지는 대회였습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수성구민 행복키움 언택트 가족
걷기대회**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2주간 가족걷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102팀, 313명의 지역주민분이 카카오페이를 통해 미션퀴즈, 인증사진 등 다양한 이벤트를 비대면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조용한 자연에서 가족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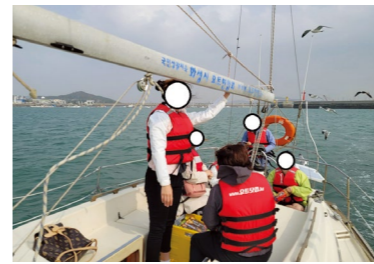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중년남성 요리교실 '오빠의 앞치마
나들이'**

저소득 중년남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식생활 자립을 위한 요리교실 '오빠의 앞치마'팀은 '카카오 같이 가치' 지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송도 케이블카를 타며 경치도 감상하고, 사진도 찍으며 오랜만에 자유를 느껴보는 설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세척 아이스팩 활용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친환경 에코백으로 교환하고 수거된 아이스팩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씻어서 하남시 수산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고운들
제주도 나들이 프로그램**

답답했던 일상생활을 잠시나마 잊고 응크려있던 몸과 마음을 펼치고자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하여 양육과 일상 생활에 지쳐있었으나 나들이로 엄마들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름들
엄마들만의 행복한 제주 여행**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엄마들만의 제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감염병 예방과 안전에 주력하면서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탐방하고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름들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누적된 일상생활과 육아의 피로를 날려버리고 자립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대구클로버
부모교육(긍정적 훈육교육)**

양육자가 아이들에게 울타리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 미혼양육모에게 꼭 필요한 부모교육으로 9회기 실시하였습니다. 자녀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의 기질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사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다시 쓰는 수영이야기-엄마의 클라스'
동아리 실시**

지역 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수영구청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 '다시 쓰는 수영이야기-엄마의 클라스' 캘리그래피 동아리가 열렸습니다. 캘리그래피 수업을 통해 친목 활동을 기본으로 손글씨를 활용한 지역사회 나눔 활동까지 전개할 예정입니다. 엄마의 클라스를 통해 제2의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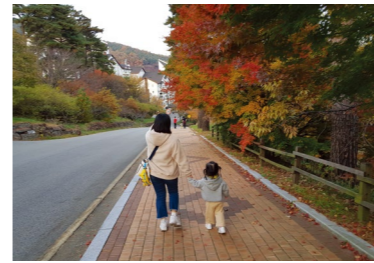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가치 걷자, 동네 세 바퀴!**

10월 31일, 매년 실시해오던 마을 축제 대신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홀트패밀리샵# QR퀴즈, 나만의 단풍 만들기, 본리공원 포토존 인증 등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미션을 함께 즐기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는
'Happy Healing Day'**

11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지원으로 가을 나들이와 가족체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판 사과로 쿠키도 만들고 목장체험도 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가족 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전클로버
가을맞이 단풍 여행**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언택트 가을 단풍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대전클로버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립교육으로 바쁜 엄마들이 오랜만에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초기 정착지원 '꼬레아
꼭꼭2'**

초기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꼬레아 꼭꼭'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한 식재료와 먹거리 선택,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리법과 영양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이프 더 에코**

1인 가구를 포함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세이프 더 에코' 프로그램을 비대면과 대면으로 10회 시행하였습니다. 환경교육, 허니랩 제작, EM 비누 만들기, 플로깅 활동 등으로 실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톡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안내

아동·청소년후원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입양대기아동의 양육비, 의료비로 사용되며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 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해 체계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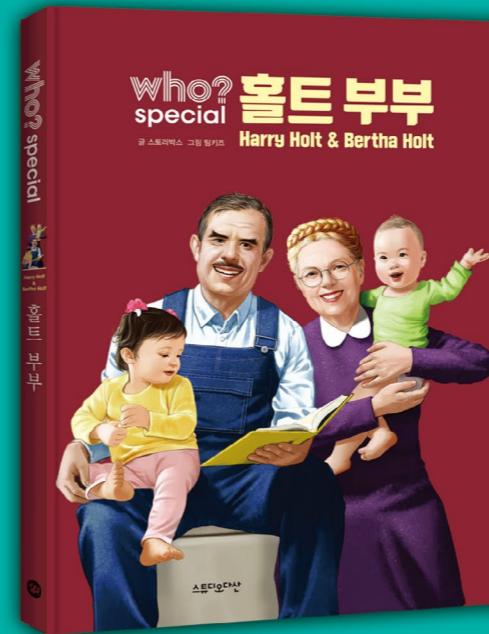
해외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국내·해외아동결연 후원

도움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아동이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 교육, 의료, 가정, 정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결연아동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02-331-7000
- ARS후원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who? special 홀트 부부

도서 출간 기념 EVENT

8명의 한국 전쟁고아를
입양하면서 시작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홀트 부부를 만화로 만나보아요!



응모기간

12/1~
(상품 소진 시 까지)



당첨자 발표

DM 개별 연락
(비공개 계정의 경우,
개별 댓글)



선물

who? special 홀트 부부
도서 100명 (추첨)

참여방법

- 1 홀트아동복지회 인스타그램(holt_welfare) 팔로우!
- 2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글 댓글로 'who? special 홀트 부부' 도서를 갖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 3 친구 소환(@태그)까지 하면 참여 완료!

* 중복참여 불가! 참여는 한 번만 해주세요 😊



 홀트아동복지회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밀라노스토리
전속 모델 고아라



현대홈쇼핑은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나눔기업입니다.